

SKC, LIPB 고분자전지 세계 으뜸!

미국 국방성 프로젝트 연구소 선정 ... 천안공장 증설로 9월 본격 양산

세계 리튬폴리머 전지 생산기업으로는 유일하게 SKC가 미국 국방성의 <차세대 고분자 전지> 프로젝트 연구소로 선정됐다.

SKC는 7월10일 미국 뉴저지의 2차전지 R&D 센터에서 미국 육군 전지연구소 관계자들과 <차세대 고분자 전지 개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차세대 고분자 전지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LIPB(Lithium Ion Polymer Battery)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환경오염 물질인 유기용매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지 제조 프로세스를 단순화한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SKC는 프로젝트 계약 조인식과 동시에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30만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으며, 2004년 예정된 약 470만달러의 추가 지원이 심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기관 테스트에서 SKC LIPB가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LIPB로는 유일하게 미국 국방성의 까다로운 품질규격을 만족시켰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성의 평가에서 SKC는 세계 최우수 제품으로 알려진 Sony 및 일본기업의 LIPB를 제치고 “세계 2차전지(리튬이온전지 및 리튬폴리머전지) 중 SKC 리튬폴리머 전지가 용량 및 품질면에서 최고”라는 극찬을 받은 것을 전해졌다.

미국 국방성 프로젝트 합류로 SKC는 차세대 리튬폴리머 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개발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도 미군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SKC는 현재 천안에서 진행중인 월 100만셀 규모의 리튬폴리머 전지 증설작업을 8월까지 마무리 짓고 9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양산에 앞서 국내외 이동통신기기 제조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전개중인데 특히 세계적인 휴대폰, PDA, 노트북PC 제조기업들로부터 제품 승인 작업을 이미 마치고 리튬폴리머 전지 공급에 관해 현재 협의중이어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02년 약 350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리튬폴리머 전지는 통신기기의 모바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폴리머전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용 분야가 늘어나고 있어 2005년에는 약 1조원대 이상으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SKC의 2003년 2/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 3064억원, 순이익은 22% 감소한 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31>